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경제]

- WSJ: 홀리데이 시즌 앞두고 미 소매 판매 3월 이후 첫 하락
- Bloomberg: 미 생산자 물가 지난 2020년 4월 이래 가장 크게 하락
- WSJ: '미 연착륙이 오고 있다'
- CNBC: 연방 하원, 섯다운 일시 방지 법안 통과... 상원도 통과 예상

#### [미국 금융]

- Bloomberg: S&P 500 지수 4500 돌파

#### [뉴욕시]

- NYT: 뉴욕시 씨티 자전거 서비스, 저소득층 지역서 더 열악

#### [학자금 대출]

- Bloomberg: 학자금 융자 상환 시작, 미국인 1백40만 명 채무 불이행 리스크 직면

#### [주택]

- WSJ: 주택 인플레이션, 여전히 최악이다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화웨이와 차이나 모바일, 중국 남부에 1.2테라비트 인터넷 연결망 구축
- Bloomberg: 재택근무 허용이 기업 매출에 도움되다
- WSJ: 월그린, 일반 매장을 전자상거래 배송 허브로 전환 계획
- Bloomberg: 스페이스 X, 스타링크 사업부 상장 논의 중... 빠르면 2024년 말까지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WSJ: U.S. Retail Sales Fall for First Time Since March as Holiday Season Approaches**

#### **홀리데이 시즌 앞두고 미 소매 판매 3월 이후 첫 하락**

- 지난 10월에 소비자들은 스토어 지출, 자동차 구입, 주유소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연방 상무부의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10월 미 소비 판매가 전월에 비해 0.1% 감소했다. 작년과 비교해서는 소매 판매가 단지 2.5%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지난 3월 이후 첫 하락세다. 지난 9월의 0.9% 상승세 후에 줄어든 것.
- 이같은 소매 매출이 줄고 고용과 인플레가 둔화되다보니 올해 상당기간 강한 경제 성장 후에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다.

## WSJ 기사

**Bloomberg: US Producer Prices Decline by Most Since April 2020 on Gasoline****미 생산자 물가 지난 2020년 4월 이래 가장 크게 하락**

-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즉, 생산자에게 지불한 가격이 전월에 비해 0.5% 하락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뺀, 핵심 생산자물가지수 (core PPI)는 변동이 없었다.
- 작년 10월과 비교해서는 1.3% 성장했으며 핵심 생산자물가지수는 연간으로 비교할 때 지난 2021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세다.
- 최근 미 인플레이가 둔화하면서 금융 트레이더들은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베팅을 철회했다.

## Bloomberg 기사

**WSJ: The Elusive Soft Landing Is Coming Into View****‘미 연착륙이 오고 있다’**

- 요지: 인플레이션 소식이 예상보다 좋은 편이고 아직은 침체 신호는 없다.
- 경기 침체가 없거나 경지 약세가 없으면서 동시에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되는 이른바 연착륙이 가까워지고 있다.
- Oxford Economics의 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가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미 국내총생산량이 완전히 위축되는 현상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6개월전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코노미스트들 대상 설문에서 그들은 향후 12월 동안 경기 침체가 있다고 말한 반면 10월 같은 조사에서 평균적으로 침체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 WSJ 기사

**CNBC: House passes bill to avoid government shutdown, Senate to vote next****연방 하원, 섯다운 일시 방지 법안 통과... 상원도 통과 예상**

-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표결로 통과될 전망이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연방법원은 이번주 금요일 밤 11시 59분에 섯다운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신임 하원의장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 이번 법안은 특징은 연방 부처들 가운데 자금 지원을 두 트랙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 일부 부처들은 내년 1월 19일까지, 다른 부처

들은 2월 2일까지 지원하게 된다.

CNBC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S&P 500 Rises Above 4,500 as Bonds Reverse Course: Markets Wrap** **S&P 500 지수 4500 돌파**

- S&P 500이 11월에 상승을 이해하면서 지수가 4500을 돌파했다. 최근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비교적 회복력이 있고 인플레이션은 둔화되는 상황에서 연준이 소프트랜딩을 이룰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 국채는 글로벌 채권이 올해 2023년 손실을 없애기 직전까지 상승한 후 하락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4.9%로 7bp 상승했다.
- 한편 대형 소매업체인 타겟은 예상외 수익으로 주식이 프리마켓 시간에 15% 가량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 [뉴욕시]

#### **NYT: Citi Bike Service Is Worse in Low-Income Neighborhoods, Study Finds** **뉴욕시 씨티 자전거 서비스, 저소득층 지역서 더 열악**

- 뉴욕시 감사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에 자전거 이용이 인기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씨티 바이크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바이크 스테이션이 꼭 차서 반납하지 못하나 또는 바이크를 이용하려고 해도 스테이션이 바이크가 비어있거나 고장난 바이크가 있다는 것.
- 특히 흑인과 남미계, 저소득층에 거주하는 지역일 수록 서비스가 열악하다. 예컨대 선셋 파크, 플랫폼쉬, 크라운 하이츠, 브롱스 등이다.
- 현재 씨티 바이크는 차량공유업체인 Lyft가 운영중이며 뉴욕시 교통국이 감독하고 있다.

NYT 기사

### [학자금 대출]

#### **Bloomberg: After Student Loan Payments Restart, 1.4 Million Americans Risk Defaulting on Debt**

## 학자금 융자 상환 시작, 미국인 1백40만 명 채무 불이행 리스크 직면

- TransUnion과 Boston Consulting Group에 따르면, 학자금 융자 상환 재개가 미국인들 높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자금 융자 상환으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앞으로 1년 후 심각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일 수 있는 미국인의 수가 1백40만에 달하는 것이다.
- 이미 높은 금리로 인해 미국인들이 경제적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TransUnion의 선임 부회장을 맡고 있는 Liz Pagel는 “이번 대출 상환 재개의 파급력이 대출 사업 업체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뉴욕 연준에 따르면, 9월 말 미납 부채의 약 3%가 연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개월 이전 대비 0.4%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 [주택]

#### WSJ: While All Inflation Feels Bad, Housing Inflation Is the Worst 주택 인플레이션, 여전히 최악이다

- 휘발유와 식료품의 물가가 완화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주택의 경우 완전히 다른 문제다.
- 연방 노동 통계국이 집계한 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주택 구매 비용을 주택가격으로 측정하지 않고, 주택 임대료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 주택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주택 가격과 모기지 금리이다. S&P와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지수에 따르면, 주택 가격은 2021년 초 이후 29% 상승했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 또한 세 배 가까이 상승했다.
- 일반적인 주택 구매자들은 전국부동산협회(NAR)에 따르면 원금 및 이자 상환에만 거의 2천2백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2021년 대비 두배 이상인 금액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자들에게 주택은 휘발유나 식료품보다 더 중요한데, 결혼과 자녀계획 같은 삶의 더 중요한 요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지만, John Burns Research and Consulting의 대표 이사인 John Burns는 모기지 금리가 아직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으며, 내년 가을까지 주택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Bloomberg: China Claims World's Fastest Internet With 1.2 Terabit-Per-Second Network****화웨이와 차이나 모바일, 중국 남부에 1.2테라비트 인터넷 연결망 구축**

- 화웨이 테크놀로지와 차이나 모바일이 중국 베이징과 남부를 연결하는 3천 킬로미터의 인터넷 연결망을 구축한다.
- 이 두 기업은 칭화대와 리서치 업체인 Cernet.com과 협력한다. 이번에 구축하는 연결망은 전 세계 일반적인 인터넷 속도보다 몇 배 더 빠른, 초당 1.2 테라비트의 대역폭을 추구하는 세계 최초 인터넷 네트워크를 목표로 한다.
- 대학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연결망 관련 테스트가 7월 31일에 시행됐으며, 다양한 검증을 통해 큰 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Letting People Work From Home Is Good for Companies' Revenue Growth****재택근무 허용이 기업 매출에 도움되다**

-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허용한 기업의 수익 성장률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4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보스턴 컨설팅 등이 전체적으로 2천 6백7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상장기업 5백54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완전히 원격으로 근무하거나, 직원들에게 자유로운 재택근무를 허용한 “완전 탄력(fully flexible)” 기업의 경우 2020년과 2022년 사이에 매출이 21%나 상승한 것이 드러났다.
- 반면, 재택 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혼합하거나, 재택근무를 허용하지 않았던 기업의 경우 매출 성장률은 5%에 그쳤다.

Bloomberg 기사

**WSJ: Walgreens Wants the Corner Drugstore to Be an Online Delivery Hub****월그린, 일반 매장을 전자상거래 배송 허브로 전환 계획**

-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자사의 8천7백 개의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주문 배송의 속도를 높이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핵심 요소로 보기 시작했다.
- 이 기업은 오랫동안 가정용품에 대한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기 사용해왔던 창고 사용을 중지했는데, 이는 앞으로 월그린이 자사의 매장을 일반적인 소매점과 배송을 위한 허브로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것임을 보여준다.

- 이번의 변화는 기업의 약국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온라인 상거래와 오프라인 매장의 유통망을 단일 체계로 통합시켜, 사업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 Bloomberg: SpaceX Weighs Spinning Off Starlink Via IPO as Soon as 2024

스페이스 X, 스타링크 사업부 상장 논의 중... 빠르면 2024년 말까지

- 스페이스 엑스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스페이스 엑스가 우주 통신에 대한 강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스타링크 위성 사업부를 빠르면 2024년 말까지 상장시키는 것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 신원 미공개를 요청한 관계인은 이를 위해, 스페이스 엑스는 자사와 앞으로 분리될 스타링크 위성 사업부의 자산을 독립적으로 분리중이라고 말했다.
-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업분할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상장이 2025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거의 '제로'...언제 내릴 것이냐가 문제

'7월까지 0.5%p↓' 베팅 많아, '이르면 3월부터 인하' 의견도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일제히 '이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쪽에 베팅했다.

특히 내년 7월까지 금리를 0.5%포인트 이상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커졌다.

14일 (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CPI 보고서 발표 이후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